

# 특검 임명 임박... 반환점 앞둔 삼성 수사

### 檢, 한달간 비자금 추적 주력... 로비 의혹 등 특검에 오늘 특검 후보 3인 추천, 대통령 20일께 임명 예상

◇한달 간 수사, 무얼 남겼나=삼성 그룹 법무실장 출신인 김응철 변호사는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연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와 사제단 등은 4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김 변호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원 을 관리했고, 삼성은 전·현직 검찰 간 부 수심명 등 범죄계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떡값"을 주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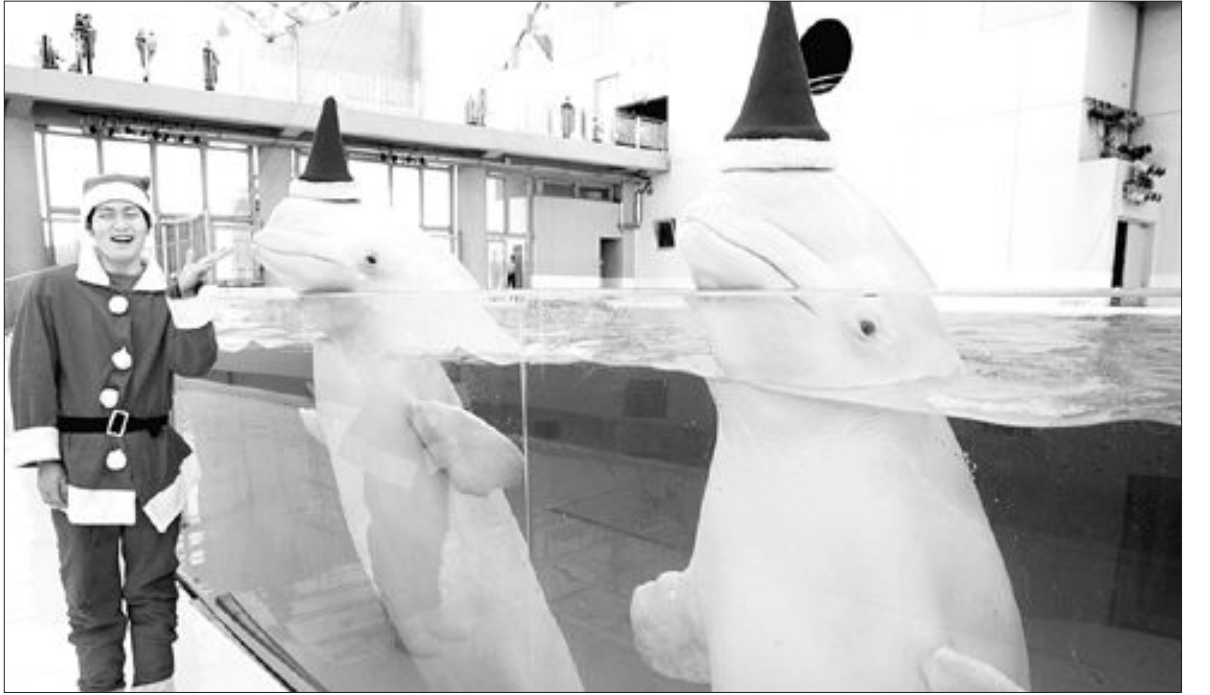
의혹이 증폭되자 검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특별수사·감찰본부 를 설치했다. 그러나 출범 직후인 23일 '삼성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져 검찰 수사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했다.

◇특검 될 수사하나='삼성 특검법' 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변협은 17일 상임 이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는 '바통 터치'를 앞두고 있다. 검찰 특별 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다음 주 중 특별검사가 임명 되면 수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삼성 비자금 수사는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회를 열어 특검 후보 3인을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19일)를 감안하면 특검은 20일께 임명될 전망이다.

법조계 로비 등 '3대 의혹'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개시 후 60일 동안이며 기한을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삼성 특검'은 최장 105일 간 수사할 수 있어서 삼성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4월20~30일 계 관련자 기소 여부 결정,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종료될 전망이다. /연남뉴스



산타 모자 쓴 돌고래 산타 모자를 쓴 흰 돌고래들이 16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의 한 수족관에서 새로운 크리스마스쇼를 하던 중 트레이너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남뉴스

## / 2007년 말 말 말 /

### “한방이나 헛방이나” “사랑하는 짱아에게”

#### 국내

“대못질 해 넘기겠다” “한방”이나 “헛방”이나 “사랑하는 짱아에게” “아무 이유 없어.”

꽤 지해인 2007년 정해년(丁亥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흥수를 이뤘던 한 해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이해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가 정치적 담탄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입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격정연설과 솔직화법을 통해 정치적 고비마다 승부수를 던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통치를 한다”는 자신에 찬 일성으로 집권 마지막 해를 연 노 대통령은 입기 말이 다가오면서 “말씨와 자세에서 대통령을 할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는 발언이 기사실 통폐합과 취재진진화 방안으로 이행되고 ‘기자실 대못질’ 발언으로 췌기를 박으면서 끝내 ‘언론과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중아씨 화려비호 의혹이 불거지자 “나는 공무원 30년을 바르게 한 사람이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씨에게 보낸 이메일 중 ‘사랑하는 짱아에게’로 시작하는 ‘연서’가 발견돼 들통이 났다.

노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감도 안되는 의혹이 춤을 추고 있다” “소설같은 얘기”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발짝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의 언어 독기가 서렸다. ‘BBK 사건’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 ‘헛방 대 한방’ 공방으로 번졌고, 장본인 김경준씨가 송환되고 검찰의 ‘무혐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확연 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연남뉴스

### “이태백 수두룩한데...” 논란 확산 대선 앞두고 ‘합의’ 시기상조론도

◇시기상조론도 만만찮아=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국회에는 직급별로 차등화된 공무원 정년을 일원화하려는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돼있지만 사회적 비판어론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청년 실업문제 ▲강제퇴출 등 민간 부문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아 인간의 정년도 결국 연장되는 ‘공정적인’ 영향이 있다는게 중론이지만 당장 민간의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적절할 준비도 없이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연남뉴스

### ‘공무원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받을까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지난 14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안으로서 결국 국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관가름이 나겠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참여정부 임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명시적으로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연장요구 왜 나왔나=공무원 정년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직급별로 차등화된 정년의 일원화 ▲

정년연령의 상향조정 두 가지다.

1997년까지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였다. 그러나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거치면서 1998년부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낮아졌다. 환란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살씩 낮춘 것이다.

1997년까지는 각 부처 장관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해 최장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환란 사태를 지나면서 연장 제도가 폐지된데다 종전보다 1년씩 정년연령이 줄어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해있는 공무원 노조는 ‘직급별 불균형’을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정치권은 16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민주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신당과 민주·민노당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이거나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시사함에 따라 대선 이후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각 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 정치권, 공무원 정년 연장 ‘시각차’

### 신당·민노·민주 “찬성” 한나라 “검토”

의 표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정국이 곧바로 18대 총선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17대 국회 회기 내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8대 국회로 넘어 갈 경우에는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잘한 일이다. 진작 추진됐어야 되는

로 한 것은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국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옳고,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공무원 정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공무원 정원 및 정부조직 등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입기 말 정권이 정년연장에 대해 덜렁 합의한 것은 선거용임이 명백하며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남뉴스

### “부시는 美 최악의 대통령” “악마가 왔다”

#### 국제

2007년도 ‘말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각국 지도자들의 거침 없는 발언들이 주요한 관심을 끈 한 해였다.

공개적 ‘침미’를 천명하며 직선적 말투조차 부시 대통령을 닮은 니콜라 사르코지 신임 프랑스 대통령, ‘돌아온 강대국’ 지위를 한껏 누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언사도 화제에 올랐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쏟아낸 ‘독설들’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쟁 역시 울해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말’에 속한다.

▲“내가 깔길 웃더라고 전해줘요”(조지 부시 미 대통령, 이란이 2003년 핵개발을 중단했다는 미 정보기관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 이란 정부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지금 간인하고 폭압적인 정권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부시, 8월 22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미 해외참전용사회(VFW) 연례모임 연설에서)

▲“어쨌든 나는 단어 발음에 서투르다”(부시, 1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자신이 민주당에 대해 잘못 발음한 것과 관련해)

▲“부시는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졌는지 모르겠다”(지난 3월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악마가 왔다”(9월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 주류 언론의 반응) /연남뉴스

**성적 수직 상승**

2007년 12월 17일

성적 수직 상승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자료 소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의 광고.